

##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

- 정부에서는 WTO의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사법 개정(2011. 5. 30)을 통하여 UIA권고 기준에 의한 교육, 실무수련, 자격검증, 자격등록, 갱신등록, 계속교육을 근간으로 한 『건축사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과 등 주요한 건축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건축사등록원』, 『건축사교육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계 발전을 위한 건축제도의 개선 및 정책 개발, 건축정보 제공,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협회 정관과 회원신고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면 건축사사무소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건축사는 건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건축계가 하나 되는 건축문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회원종류

정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자
준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 ■ 회원혜택

- 건축전문지 월간 <건축사>, 건축계 정론지 격주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제공
- 건축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 건축관련 법령자료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 기회 부여
- 회원복지서비스 혜택
- KIRA NEWS 제공
- 건축관계 법령 질의·상담 및 대정부 건의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및 국제행사 참여 기회 제공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정부포상 추천

### ■ 정회원 가입절차

- 건축사 자격등록 후, 해당 시·도건축사협회 신고서류 제출 및 회비납부
- 제출서류 : 정회원 신고서, 건축사 자격등록증(전자문서), 반명함판사진 2장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추가 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 ■ 회비안내

#### 1. 회비의 종류 및 금액

구 분	납 부 내 용	납부처
정회원	· 입회비 : 300만 원(입회 시 1회) · 월정회비 : 3만 원(매월) · 시·도건축사회 회비(입회비 및 월정회비) : 해당 시·도건축사회 회칙에 따름	시·도건축사회
준회원	· 입회비 : 50만 원(가입시 1회) · 연회비 : 6만 원	

#### 2. 회비 사용처

- 입회비 및 정회원(준회원) 회비 : 건축문화발전 및 회원권익증진, 협회조직관리 운영자금 등

### ■ 본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본협회	(02)3415-6800	(02)3415-6855	대 전	(042)485-2813~5	(042)485-2818	충 남	(041)338-4088	(041)338-4188
서 울	(02)581-5715~8	(02)523-2284	울 산	(052)274-8836	(052)268-8837	전 북	(063)251-6040	(063)251-6048
부 산	(051)633~6677	(051)634-2966	세 종	(044)862-6336	(044)862-6226	전 남	(061)285-7563~4	(061)285-7567
대 구	(053)753-8980	(053)756-9049	경 기	(031)247-6129~30	(031)242-7072	경 북	(054)859-8170	(054)859-8175
인 천	(032)437-3381~4	(032)437-3385	강 원	(033)254-2442	(033)255-2083	경 남	(055)246-4530	(055)245-4530
광 주	(062)521-0025~6	(062)528-0026	충 북	(043)223-3084~6	(043)223-3089	제 주	(064)752-3248	(064)756-3248

\* 회원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도건축사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등록실적팀(☎ 02-3415-685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Snobbish Architect

## Snobbish Architect

글. 홍성용  
Hong, Sungyong  
본지 편집국장

고령의 베테랑 배우 윤여정 씨가 각종 국제 영화제 수상으로 화제다. 그녀의 재치 있는 인터뷰는 국내·외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얼마 전 영국 아카데미영화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그녀가 했던 유머러스한 발언으로 고약한 단어 하나가 회자되었다.

위선적이고 거만한 사람들을 비꼬는 말로 'Snobbish'라는 단어가 있다. 이는 교양 있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자신들의 잇속만 차리고 호박씨 까는 위선과 속물을 일컫는다. 그녀는 영국 아카데미영화제의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그런 단어를 대놓고 사용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듣는 이의 감정적 반응이 달라진다. 윤여정 배우의 노련함은 듣는 이들이 뜨끔할 만한 말을 쓰면서도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들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발견한 그녀의 유쾌한 인터뷰는 새삼 우리 건축계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녀가 언급한 Snobbish England people 대신에 Snobbish Architect라는 단어가 새삼 떠올랐다.

어떤 분야나 그렇겠지만 우리 건축계는 참 독특한 곳이다. 다른 산업과 비교해 봤을 때 경제성, 생산성이 상당히 낮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는다. 학력도 낮지 않다. 오히려 학력 인플레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석·박사 학위자

가 정말 많다. 유학도 많이 간다. 전 세계 유명 건축 대학에는 한국인이 없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 한국인이 없는 건축대학은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대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런데, 많은 건축계 인사들이 사석에서 만나는 모임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뒷말도 많고.



그거야 누군들 안 그러랴? 서양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해당 소재가 수많은 풍자 소설과 영화에 그렇게 많이 다뤄지는 것이다. 문득 월간 건축사 '영화 속 건축 이야기' 코너에서 한 번 다뤘던 영화 <아키텍트(The Architect)>가 떠오른다. 이 영화 속 건축사는 전형적 가식과 위선, 지적 허영심으로 가득 찬 인물이다. 일부러 찾는 듯한 고상하고 어려운 단어들을 구사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환상과 낭만을 강요한다. 자신의 꿈을 클라이언트를 통해 성취하려는 욕망 그 자체인 이기적 인물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인물을 금방 만날 수 있다. 알고 있는 한 젊은 건축사가 자신이 일했던 직전 회사 대표 건축사를 언급하면서 '도련님 건축사(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뉘앙스가 딱 Snobbish Architect였다.

하지만 이런 위선은 생각에 따라서 쉽게 벗어던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인정에 대한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자신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건 비단 건축사(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이들에게 해당된다.

고령의 베테랑 배우 윤여정 씨는 영국 아카데미영화상에 연이어서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수상식장에서의 발언과 이후의 발언에서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모두 솔직하게 드러냈다. 열심히 일한 엄마가 받은 보상이라는 말, 먹고살기 위해서 연기를 했다는 그녀의 솔직함은 75세 노배우의 팬덤(fandom)을 구축하는 공감과 감동을 주었다.

나는 요즘 생존형 건축사라는 말이 너무 좋다. 껍데기로 꾸미지 말자. 모두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나 르 코르뷔지에가 될 필요가 없다. 옆 사람이 김중업이 되든, 김수근이 되든 축하해 주고 응원하자. 질투하지 말자. 그저 스스로 건축하는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자. 그런 건축사가 되자.